

海外業界動向

'93 세계 경쟁력 조사 결과

스위스의 경제조사기관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행하고 있는 이 조사는 국내경제력, 투자와 무역의 국제화, 정부의 경쟁정책, 과학기술, 인적자원, 인프라정비, 기업경영 등의 8개 분야에서 선진제국과 신흥공업국 등 56개국을 대상으로 각종 데이터를 집계해 비교분석한 것으로 세계 1만8천명의 주요 기업경영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8개 분야중 국내경제력 기업경영, 과학기술의 3분야에서만 1위를 했을 뿐, 보호주의적 경향 증대로 국제화의 분야가 3위에서 6위로, 정부의 경쟁정책분야의 신뢰도 역시 3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이외에 기업경영자의 의식조사에서는 일본 경제를 낙관하는 정도를 물었는데, 3위에서 4위로 하락하였다.

또한 인프라정비에서는 5위에서 16위로 전락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새로이 추가된 환경보호의 지표에서 낮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회복과 독일·스위스의 경제력 저하로 인하여 2위로 부상하였다.

국제화의 분야에서는 10위에서 5위로, 또 기업경영에서는 9위에서 5위로 올라갔는데, 인프라정비에서 2위에서 9위로 떨어지고, 인

적자원에서도 7위에서 10위로 하락, 미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게 되었다.

신흥공업국에서는 작년에 이어 싱가포르가 1위를 기록하였고 2위에는 홍콩, 다음은 대만, 말레이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EIA가 HDTV 본방송 '96년 올림픽에……

미국 전자공업회(EIA)는 HDTV의 본방송을 '96년 하계 애틀란타 올림픽에 맞춰 방송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EIA가 본방송 개시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EIA에서는 HDTV관련기기의 조기시장도입은 침체된 미국경제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방송 개시 시기는 EIA의 Advanced TV위원회가 미하원의 통신·개정 소위원회에서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 내용은 「4개 HDTV방식의 Grand Alliance」(대동맹)는 미국이 디지털 HDTV 방식의 개발로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두번다시 없는 기회이며 「HDTV로 일반 소비자의 수요를 환기시킬 기회는 올림픽 이외에는 없다」고 조기 방송의 실현을 호소하였다. EIA는 미국전자업계의 입장에서 HDTV의 조기방송 결정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요구하고, HDTV 방송이 실시되면 브라운관, IC, 기타 부품, 방송기기, 소프트웨어 등의 설계·생산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HDTV방송이 전자업계 나아가서는 미국경제의 부흥에 공헌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의회에 '96년까지의 방송개시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93년 미국의 가정용 전자 매출 5.6% 성장

미국 전자공업회(EIA)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미국의 가전제품 매출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약 400억\$ (공장출하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부문별로는 TV, VTR 중심의 비디오부문이 14억\$의 매출이 예상되며, C-TV의 판매대수는 전년대비 8% 증가한 2,270만대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27인치 이상의 대형 C-TV는 전년대비 30% 신장이 예상된다.

오디오 부분의 매출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03억\$이 예상되며, 이 가운데 휴대용 CDP의 판매대수가 28% 증가해 1,07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정용 정보기기 부분의 매출은 100억\$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가정용 컴퓨터의 판매대수가 10% 증가한 784만대, 코드레스폰의 판매대수는 14% 증가한 2,020만대가 예상된다.

기타 부분의 매출은 8%, 비디오 테이프는 5%의 증가가 각각 예상된다.

애플 컴퓨터 정보통신 3개사와 제휴

미국 애플 컴퓨터는 곧 발매하게 될 휴대 정보가전제품 「뉴튼」을 포함한 동사 제품으로의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위해 Bell South, Ameritech, US West의 통신대형 3개사와 제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뉴튼」은 디지털 기술을 구사해, 전택, FAX, 퍼스널 컴퓨터, 전화기능 등을 갖춘 상품으로, 샤프의 생산에 의해 금년 여름부터 발매할 예정이다.

타임워너 계열사인 TWIG(Time Warner Interactive Group)과 애플·컴퓨터는 최근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를 컴퓨터에 국한하지 않고,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제휴를 맺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3년간의 제휴기간중, 애플의 퍼스널 일렉트로닉스 그룹(PIE)이 소매점으로 「뉴튼」, 「파워-CD」 등의 애플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TWIG의 CD-ROM 소프트웨어를 출하한다. TWIG의 경영진은 CD-ROM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은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TWIG의 매킨토시, MPC의 소프트웨어는 이미 출하준비하는 끝난 상태이다.

또한, TWIG는 지난주 IBM의 차회사인 에듀케스트와도 공동으로 DOS방식의 CD-ROM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MD시장에 새로이 참여하는 3사

톱슨 컨슈머 일렉트로닉스(TCE), 캔우드, 부라우퐁크트 등 3개사는 지난 6월 하계 CES전시회 기간중 각각 미니 디스크(MD) 시장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TCE는 RCA브랜드의 재생전용 포터블 MD 플레이어 「RP-6001」의 위경모델을 출품하였는데 가격 599\$로 제 3/4분기중에 판매개시할 예정이다.

잔자스킵 방지기능(RAM 10초간), 우선 리모콘, 다기능 LCD 포세기능, 실비모디 등이 특징이다.

캔우드는 미니컴포탑재 녹음재생 데스크를 년내에 도입할 계획이며, 포터블 MD도 빠르면 내년봄 미국시장에 도입한다.

프라우퐁크트도 모델전시는 하지 않았으나, 내년 1/4분기중에 Car-MD 제품을 발매할 계획이다.

同社は 카오디오의 헤드유니트 시장에 있

어서의 MD플레이어 시장쉐어가 '93년 1%, '96년 9%, '98년에는 19%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TCE, 캔우드, 브라우퐁크트 등은 MD도입에 주력하고 DCC의 도입은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 한다.

미국 파이오니아, 레이저 액티브 시스템을 도입

Bell South에 의하면 4개사는 합동으로 6월부터 3개월간 올란드지구(플로리다주)의 50세대를 대상으로 홈 뱅킹이나 FAX의 송수신 등 「뉴-튼」의 기능을 갖춘 전화시작품의 시장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미국, 인텔, 호환 MPU관련 대만 트윈헤드 제조

인텔社가 ITC에 제조한 상대는 대만의 트윈헤드 인터내셔널社.

트윈헤드는 자사의 노트북 PC인 「슬림노트」에 인텔이 특허침해라고 하여 제조한 AMD의 인텔호환 MPU 「386」을 사용하고 있다.

인텔의 제조내용은 트윈헤드의 PC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마이크로코드(MPU)를 작동시키기 위한 제어소프트)의 저작권침해는 아니다.

인텔은 금년초에도 AMD와 사이릭스제 MPU를 탑재한 PC를 생산하고 있는 대만 업체에 대해 출하가격의 1%를 지불하도록 요구, 대만측을 당황케 하고 있다. 인텔의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AMD와 사이릭스양사는 트윈헤드社를 포함해 대만 메이커를 보호하기 위한 결속을 도모키로 하였으며, 대만의 PC 관련기업 900개사가 가맹한 타이페이 컴퓨터협회(TCA)도 AMD와 사이릭스측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후 시작될 ITC의 조사에 대비해 TCA는 대북의 한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명해 인텔에의 항전을 대비하는 외에, TCA는 로얄티 지불 거부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인텔의 호환 MPU를 둘러싼 싸움은 국외까지 불뚱을 튀게 해,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AMD와 사이릭스의 2개사가 대만의 「386」 MPU시장의 90%를 점할 정도로, 대만은 호환기의 천국이라고 한다.

타임 워너 계열 TWIG, 애플과 제휴

파이오니아 일렉트로닉스(USA)는 레이저·액티브 시스템을 9월말부터 본체 가격 799\$, 카트리지가격 500\$로 판매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립스가 파라마운트와 계약해 인기 영화를 CD-I 디스크로 발매한다는 발표에 관해, 그는 「CD무비디스크는 제조코스트로는 LD보다도 싸지만, MPEG1의 화질은 LD품질에 비해 떨어지며, CD-I와 FMV카트리지의 세트가격은 800\$이어서 소비자에게 비교적 싸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며, CD무비는 비디오 테이프 이상의 것을 줄 수 없다」며 LD 사업으로의 영향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견해를 피력하였다.

애플사, GPS, SHARP, VLSI 등에 ARM610 라이선스 생산

세계적인 PC업체들이 앞다투어 차세대 고성능 PC들을 개발해 넘으로써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애플사는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신기종 뉴튼 PDA시리즈에 사용될 핵심적인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ARM610을 GPS, SHARP, VLSI 등 세계적인 전문 반도체 업체 3개사를

선정, 지난 4월부터 라이선스 생산토록 했다.

애플사의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라이선스 생산 의뢰는 향후 출시될 신기종에 필요한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물량과 기술을 적기에 확보, 신제품 공급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애플사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ARM610은 ARM(Advanced RISC Machine)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21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ARM6, CPU, Write Buffer, MMU(Memory Management Unit), 4 Kbyte Cache 등을 1개의 칩속에 갖추고 있다.

MMU는 2단계 Page-table을 지원하며 ARM의 다른 제품들과 같이 고성능, 저전력 소비, 즉시 중지 반응, 작은 금형 사이즈 등의 특성을 갖는다.

영국 GPS사, STACK 인증 획득

영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 메이커 GPS사가 유럽 최초로 컴퓨터 부품 표준화 기구(STACK)의 공급자 자격을 획득, 세계 반도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SIACE(Standard Computer Komponenten GmbH)은 컴퓨터 및 통신설비 업체들간에 제품 표준화 및 기술 협력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적 소유권에 대한 논란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1974년 독일에서 설립된 민간기구로, 회원사들에 대한 공급자 자격 획득 기준이 매우 까다로와 세계 반도체 업계의 매우 권위있는 품질인증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STACK의 주요 회원사들은 브리티시 텔레콤(British Telecom), 올리베티(Olivetti), 지멘스(Siemens) 등 세계적인 다국적 컴퓨터 통신 업체들이다.

일본, FM 다중방송 내년부터

TV음성다중방송, 문자다중방송으로 이어지는 다중방송(종래의 방송전파의 부반송파나 수직귀선 소거기간 등에 다른 정보를 실어 방송함)의 제3단이 FM다중방송인데, 일본의 「FM동경」 라디오 방송은 「음성미디어 전체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는 판단하에 내년부터 「보이는 라디오」라는 이미지로 FM다중방송을 개시하게 되었다.

同 서비스는 현재의 FM방송과로 문자나 도형을 다중화하여 방송하는 것으로서, 「FM동경」을 들으면서 표시된 문자 등을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일기예보, 뉴스, 스포츠 정보, 주택정보, 주식동향과, 프로그램 소개 등이 행해진다.

중국, 외국인투자 1/4분기에 급증

최근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1/4분기의 외국기업에 의한 대중국 투자액은 실적에서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한 30억\$로 나타났다.

同期の 투자계약액도 同 347% 증가한 250억\$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대외무역경제협력성은, 금년도 외국기업에 의한 對중국투자액은 작년의 116억\$을 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우대에서 홍콩에 자회사를 설치하고 외국기업으로서 본국에 투자하는 중국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풀려진 감이 있다.

국가별 투자액은 홍콩, 대만, 미국, 일본의 순서이며 투자대상의 대부분은 제조업중 경공업부문에 집중되고 있다.